

교몽가



[해제]

<교몽가>는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 수 없는 불교가사 작품이다. 불교가사는 대부분 창작자가 승려들이나, 고려말의 나옹화상이 지은 <서왕가(西往歌)>에서 불교가사의 시발점을 찾아 볼 있다. 이 작품은 국한문 혼용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작품이 들어있는 책의 원 제목은 알 수 없으나, <금강산 유산록(金剛山遺産錄)>과 함께 실려 있다. 모두 3쪽으로 되어 있고, 2음보 1행으로 전체 57행의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쪽에는 네 개의 단락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질서 정연하게 10줄씩 목판 되어 있다. 율격은 대체로 3·4조와 4·4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반부에서는 부처가 잠이 들어 꿈을 꾸고 깨어보니 추야월 둥근달이 공중에 밝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깨어 의천명월을 구경하라 하고, 성불(成佛)한 다음 중생을 구제하자는 내용이다. 중반부에서는 태고천지 넓은 허공을 초암(草庵)으로 삼고, 청산으로 대문 달아 적적한 산수 간에서 조용히 살자고 한다. 후반부에서는 유시에 입선(入禪)하니 염불소리 요량하고 불경을 외는 소리 역력하다고 한다. 삼라만상은 본공(本空)하고 삼라만상 역력하니 목전(目前)에 보는 것이 다 부처다. 그러하니 반야용선 멩에하고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에 가자고 권유하고 있다.

[원문]

송창을 반만닷고 삼삼히 혼자안저
구진먹실 아니커든 수교전심 부러할싸
운막막 수잔잔에 풍소소 월교교라
화작작 조남남에 영야청소 하소위오
도화쓴 말근물을 갑업시 쥐어먹고
삼척시비 반만닷아 곤면기식 소요할제
녀대갑자 다모르나 화개엽락 기춘추라
주인옹의 심회보소 일쑤삼쑤 삼현삼요
대기대옹 조용권실 살활종탈 체옹빈주
일촉삼관 오위편정 신훈본분 평상이류
증화완연 분명전후 사할팔방 다모르나
한산이 부장하면 아하하 대답하고
십득이 창천하면 아역시 창천하고
백일이 승천커든 남산에 올라가서
첨전고후 구경하고 석양에 도라와서
초암에 잠을자고 녹양천변 방초안에
자재히 논일면서 니나리 니나라로
태평곡을 부르리라
아리나리 노나리 아나노나 리구나리
나무아미타불
(끗)

교몽가

공왕불 미출세에 출연히 잠이드러

삼계대몽 꿈을일워 구구히 꿈을꾸다
홀연히 꿈을깨니 추야월 동근달이
공중에 발갓서라 월색은 교교하고
만산은 적적한대 청풍은 냉냉하다
여보인간 사람들아 꿈을깨소 꿈을깨소
삼계대몽 꿈을깨소 구경하소 구경하소
의천명월 구경하소 불상타 잠든사람
이리조흔 진소식이 목전에 엇건만은
삼독주에 대취하고 무명장야 잠이들어
꿈을기리 꾸노라고 구경할줄 모르오니
이아니 불상한가 이왕내가 잠을 깨어
의천명월 구경하니 잠이드러 못본사람
어서바세 잠을 깨워 이구경을 싹히리라
방편으로 수행하여 내던져 성불한후
저종생을 제도하세 태고천지 너른허공
일간초암 삼아두고 청천에 놓히져서
사해에 명랑하신 일월의 광명으로
자심광명 삼앗시며 사해수 심광하야
부증불감 하오시니 자심성해 삼앗시며
수미산이 고묘하야 제산에 초출하니
법성산을 삼앗시며 백수는 업락호대
송백은 불변하야 사시장청 하얏스니
불변초심 삼앗시며 청산은 첩첩하고
백운은 무심커든 백운으로 좌복삼고
청산으로 대문다라 적적한 산수간에
무심히 혼자안저 주인공을 벗을삼아
행주좌와 어묵간에 소요자재 수용하니
육근이 청정하야 성색에 걸림업네
송락초의 채근목과 의식이 자족하고
야학청운 청풍명월 생애가 넉넉하다
산협에 무인도요 다만내자 오작이라
낮에는 해가오고 밤에는 달이오니
비록적막 산중이나 주야벗이 상수하내
유시에 입선하니 적멸락이 현전하고
염불소래 요량하고
어늬때는 송경하니 송경소래 역력하다
혹유시는 송간암하 서보경행 음영하고
혹유시는 영두암상 배회하야 간월하니

운무심이 출수하고 수유의이 곡류로다
유시에는 주장들어 불야타조 야타하니
천불만불 간대업고 만상삼라 본공하다
유시에는 승체들어 불야안조 야안하니
천불만불 의히하고 만상삼라 역력하다
목전에 보는것이 이것저것 다부체니
평등한 법성중에 피차가 잇슬소나
눈으로 보난것이 낫나치 다부처요
귀스결에 덧는것이 무비다 | 묘법일다
수연여시 그러하나 이리조흔 진묘법을
생사장야 잡든사람 이도리를 모르옵고
삼악도에 침륜하여 무량고를 밧사오니
저아니 불상한가 공공적적 본분사를
되보하여 물러가서 방편도 썩손에잡고
생사다 너른물에 반야용선 멩에하야
그바다를 얼년건너 동왕극락 하게되면
여래장자 이아니며 출격도인 짜로잇나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금강산 유산록

인생천지차세간이
묘창해지일속이라
부유초로우리생애
조불모석세도로다
십일화홍풍우하고
백년인로시비하니
야래풍우정급하면
화락다소염녀로다
한단침에경괴하니
장생인가호접인가
사마자장문학으로
이십남유강회하고
주목왕의팔준마로
황죽가성동지하니
최호강남이삼월에
구경한코무엇하리
고려국에원생하야
금강산을일견함은

교몽가

지나인도그랬거든
황차우리조선일싸
문전일보나아서면
천리강산지척이라
일난풍화춘삼월에
금강구경한번가세
죽장망혜단표자로
이삼동지작반하야
낙양십리버튼길로
관동산천드려갈제
김화김성얼는지나
단발령에올라서서
금강산을바라보니
하상견지만야(何相見之晚也)런고

[현대역]

송창(松窓)을 반만 달고 삼삼히 혼자 앉아
 구진역실(求真覓實)101 아니 하거든 수교전심(修教傳心)102 부러워할까
 운막막(雲幕幕)103 수잔잔(水潺潺)104에 풍소소(風蕭蕭)105 월皎皎(月皎皎)106라
 화작작(花灼灼)107 조남남(鳥喃喃)108에 영야청소(永夜清霄) 하소위(何所爲)오109
 복숭아꽃이 떠있는 맑은 물을 값없이 쥐어 먹고
 낮은 사립문 반만 달아 곤면기식(困眠飢食)110 소요(逍遙)111할 제
 연대갑자(年代甲子)112 다 모르나 화개엽락(花開葉落) 기춘추(幾春秋)113라
 주인옹의 심회(心懷)114보소 일구삼구(一句三句)115 삼현삼요(三玄三要)116
 대기대용(大機大用)117 조용(照用)118 권실(權實)119 살활종탈(殺活縱奪)120 체용(體用)121 빈주(賓
 主)122
 일촉삼관(一鏃三關)123 오위편정(五位偏正)124 신훈본분(新薰本分)125 평상이류(平常異類)
 증화완연(證化完然) 분명전후(分明前後) 사할팔방(四喝八棒)126 다 모르나
 한산(寒山)127이 부장(附掌)128하면 웃으며 대답하고
 십득(拾得)129이 창천(蒼天)하면 나 또한 창천하고
 밝은 해가 하늘에 뜨거든 남산에 올라가서
 첨전고후(瞻前顧後)130 구경하고 석양에 돌아와서
 초암에 잠을 자고 녹양천변(綠楊川邊)131 방초안(芳草岸)132에
 자재(自在)히133 노닐면서 니나리 닉나라로
 태평곡을 부르리라
 아리나리 노나리 아나노나리구나리
 나무아미타불
 (끝)

교몽가

공왕불(空王佛)1미출세(未出世)에 홀연(忽然)히 잠이 들어
 삼계대몽(三界大夢)2꿈을 이루어 구구(苟苟)히 꿈을 꾸다
 홀연히 꿈을 깨니 추야월(秋夜月)3 둥근달이
 공중(空中)에 밝았어라 월색(月色)은皎皎(皎皎)4하고
 만산(萬山)은 적적(嫡嫡)한대5 청풍(淸風)은 냉랭(冷冷)하다6
 여보인간 사람들아 꿈을 깨소 꿈을 깨소
 삼계대몽 꿈을 깨소 구경(觀景)하소 구경하소
 의천명월(義天明月)7 구경하소 불상하다 잠든 사람
 이리 좋은 진소식(眞消息)8이 목전에 왔건마는
 삼독주(三毒酒)에 대취(大醉)하고9 무명장야 잠이 들어
 꿈을 길게 꾸노라고 구경할 줄 모르오니
 이아니 불상한가 이왕 내가 잠을 깨어
 의천명월 구경하니 잠이 들어 못 본 사람

어서 바빠 잠을 깨워 이 구경을 시키리라
 방편(方便)10으로 수행(修行)해야 내던져 성불(成佛)11한 후
 저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세 태고천지(太古天地)12 너른 허공(虛空)
 일간초암(一間草庵)13 삼아두고 청전(青天)에 높이 떠서
 사해(四海)에 명랑(明朗)하신 일월(日月)의 광명(光明)으로
 자심광명(自心光明) 삼았으며 사해수(四海水) 심광(深廣)하야14
 부증불감(不增不減) 하오시니 자심성해(自心性海)15 삼았으며
 수미산(須彌山)16이 고묘(高妙)하야 제산(諸山)에 초출(超出)하니17
 법성산(法性山)18을 삼았으며 백수(百樹)는 엽락(葉落)호대
 송백(松柏)은 불변(不變)하야 사시장청(四時長靑)19 하였으니
 불변초심(不變初心)20 삼았으며 청산(靑山)은 첩첩(疊疊)21하고
 백운(白雲)은 무심(無心)커든 백운으로 좌복(坐服)삼고
 청산으로 대문(大門)달아 적적(寂寂)한 산수간(山水間)22에
 무심(無心)히 혼자앉아 주인공(主人公)을 벗을 삼아
 행주좌와(行住坐臥)23 어묵간(語默間)에 소요자재(逍遙自在)24 수용(受用)하니
 육근(六根)25이 청정(淸淨)하여 성색(聲色)26에 걸림없네
 송락초의(松落草衣)27 채근목과(菜根木果)28 의식(衣食)이 자족(自足)하고
 야학(野鶴)청운 청풍명월(淸風明月)29 생애(生涯)가 넉넉하다
 산협(山峽)에 무인도(無人島)요 다만 내자(來者) 오작(烏鵲)30이라
 낮에는 해가오고 밤에는 달이오니 비록적막 산중(山中)이나 주야(晝夜)벗이 상수(相隨)31하네
 유시(有時)32에 입선(入禪)하니33 적멸락(寂滅樂)이 현전(現前)하고
 염불(念佛)34소리 요량하고
 어느 때는 송경(誦經)35하니
 송경소리 역력(歷歷)하다36 혹유시(或有時)는 송간암하(松間岩下)37
 서보경행(徐步經行)38 음영(吟詠)하고 혹유시는 영두암상(嶺頭岩上)
 배회(徘徊)하여 간월(看月)하니 운무심이(雲無心而) 출수(出岫)하고
 수유의이(水有意而) 곡류(谷流)로다 유시에는 주장(拄杖)들어
 불야타조(佛也打祖)39 야타(也打)하니 천불만불(千佛萬佛)40 간데없고
 만상삼라(萬像森羅)41 본공(本空)42하다 유시에는 승(繩)체 들어
 불야안조(佛也安祖) 야안(也安)하니 천불만불(千佛萬佛) 의희(依倚)43하고
 만상삼라 역력하다 목전(目前)에 보는 것이
 이것저것 다 부처니 평등(平等)한 법성중(法性中)에
 피차(彼此)44가 있을소냐 눈으로 보는 것이
 날날이 다 부쳐요 꺾곶에 돛는 것이
 무비대 묘법(妙法)일다 수연여시(雖然如是) 그러하나
 이리 좋은 진묘법(眞妙法)45을 생사장야(生死長夜)46 잡든 사람
 이 도리(道理)를 모르시고 삼악도(三惡道)47에 침륜(沈淪)48하야
 무량고(無量苦)를 받사오니 저 아니 불(不)상한가

공공적적(空空寂寂)49 본분사(本分事)를 퇴보하여 물러가서
방편도(方便棹)때 손에 잡고 생사다 넓은 물에
반야용선(般若龍船)50 멩에51하야 그 바다를 얼른건너
동왕극락(同往極樂)52 하게 되면 여래장자(如來長子)53 이 아니며
출격도인(出格道人)54 따로 있나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관세음보살(南無觀世音菩薩)

[각주]

- 1) 공왕불(空王佛) : 부처'를 높여 이르는 말.
- 2) 삼계대몽(三界大夢) : 삼계(三界)는 불계(佛界), 중생계(衆生界), 심계(心界)의 세 가지. 대몽(大夢)은 크게 졸은 일이 생길 징조로 보이는 길한 꿈.
- 3) 추야월(秋夜月) : 가을밤의 달.
- 4) 교교(皎皎) : 밝은 모양.
- 5) 적적(嫡嫡)한대 : 적적(寂寂)의 오자인 듯함. 외롭고 쓸쓸함.
- 6) 청풍(淸風)은 냉랭(冷冷)하다 : 청풍(淸風)은 부드럽고 맑은 바람. 냉랭(冷冷)은 매우 차갑다.
- 7) 의천명월(義天明月) : 의천(義天)은 '대각 국사'의 자(字).
- 8) 진소식(眞消息) : 소식(消息)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 9) 삼독주(三毒酒)에 대취(大醉)하고 : 독주(毒酒)는 매우 독한 술을 말함. 독한 술에 만취한 상태.
- 10) 방편(方便) : 불교에서 십바라밀의 하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는 묘한 수단과 방법임.
- 11) 성불(成佛) : 부처가 되는 일. 보살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덕을 완성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을 이룸.
- 12) 태고천지(太古天地) 너른 허공(虛空) : 아주 먼 옛날 하늘과 땅이 넓은 공중에.
- 13) 일간초암(一間草庵) : 일간(一間)은 비, 이슬, 띄약별 따위를 피하기 위하여 지붕만 설치하여 씀. 초암(草庵)은 갈대나 짚, 풀 따위로 지붕을 엮은 암자.
- 14) 사해수(四海水) 심광(深廣)하야 : 온 바다의 물이 넓고 깊음.
- 15) 자심성해(自心性海) : 성해(性海)는 진여(眞如)의 이성이 깊고 넓음을 바다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불덕(佛德)이 원만히 구비된 경지임.
- 16) 수미산(須彌山) :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앙에 있다는 산.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중턱에는 사천왕이 살고 있으며, 그 높이는 물 위로 팔만 유순이고 물속으로 팔만 유순이며, 가로 길이도 이와 같다고 함. 북쪽은 황금, 동쪽은 은, 남쪽은 유리, 서쪽은 파리(玻璃)로 되어 있고, 해와 달이 그 주위를 돌며 보광(寶光)을 반영하여 사방의 허공을 비추고 있음. 산 주위에 칠금산이 둘러섰고 수미산과 칠금산 사이에 칠해(七海)가 있으며, 칠금산 밖에는 함해(鹹海)가 있고
- 17) 초출(超出)하니 : 매우 뛰어남.
- 18) 법성산(法性山) : 법성(法性)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성.
- 19) 사시장청(四時長靑) : 소나무나 대나무같이 식물의 잎이 일 년 내내 푸름.
- 20) 불변초심(不變初心) : 변하지 않은 처음 마음.
- 21) 첩첩(疊疊) :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모양.
- 22) 산수간(山水間) : 산과 물 사이. 경치를 이룸.
- 23) 행주좌와(行住坐臥) :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4) 소요자재(逍遙自在) : 소요(逍遙)는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님.
- 25) 육근(六根) : 육식(六識)을 낳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 근원.
- 26) 성색(聲色) : 말소리와 얼굴빛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7) 송락초의(松落草衣) : 초의(草衣)는 '의순'의 호.
- 28) 채근목과(菜根木果) : 채근(菜根)은 식물의 뿌리를 캐냄.
- 29) 청풍명월(淸風明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

- 30) 오작(烏鵲) : 까막까치.
- 31) 상수(相隨) : 서로 따름.
- 32) 유시(有時) : 어떤 때.
- 33) 입선(入禪)하니 : 좌선을 하거나 불경을 읽으러 선원에 들어가는 일.
- 34) 염불(念佛) : 부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일.
- 35) 송경(誦經) : 불경을 읽.
- 36) 역력(歷歷)하다 : 또렷함. 분명함.
- 37) 송간암하(松間岩下) : 송간(松間)은 소나무와 소나무의 사이.
- 38) 서보경행(徐步經行) : 서보(徐步)는 천천히 걷는 걸음. 경행(經行)은 지름길을 이용해서 감.
- 39) 불야타조(佛也打祖) : 타조(打祖)는 타조법에 따라 거두어들인 현물.
- 40) 천불만불(千佛萬佛) : 장엄겁, 성수겁, 현겁의 삼겁에 각각 나타나는 일천 부처와 일만의 부처를 이룸.
- 41) 만상삼라(萬像森羅) :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
- 42) 본공(本空) : 근본이 비어 있음.
- 43) 의희(依倚)하고 : 어렵 못하고.
- 44) 피차(彼此) : 이쪽과 저쪽의 양쪽.
- 45) 진묘법(眞妙法) : 묘법(妙法)은 불교의 신기하고 묘한 법문.
- 46) 생사장야(生死長夜) : 생사(生死)는 모든 생물이 과거의 업(業)의 결과로 개체를 이루었다가 다시 해체되는 일. 생로병사의 시작과 끝을 이룸. 또 중생의 업력(業力)에 의하여서 삼계(三界) 육도(六道)의 미혹한 세계를, 태어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며 돌고 도는 일. 장야(長夜)는 가을이나 겨울의 기나긴 밤.
- 47) 삼악도(三惡道) : 악인이 죽어서 가는 세 가지의 괴로운 세계.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임.
- 48) 침륜(沈淪) : 침몰.
- 49) 공공적적(空空寂寂) :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어 생각하고 분별할 것도 없음.
- 50) 반야용선(般若龍船) : 반야(般若)는 대승 불교에서,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깨닫는 지혜. 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참모습을 앎으로써 성불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작용을 이룸. 용선(龍船)은 뱃머리에 용의 모형을 장식한 배.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유럽 서해안을 돌아다니던 해적선의 표지임.
- 51) 멩에 :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2) 동왕극락(同往極樂) : 극락(極樂)은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佛土)를 지난 곳에 있음.
- 53) 여래장자(如來長子) : 여래(如來)는 여래 심호의 하나.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임.
- 54) 출격도인(出格道人) : 출격(出格)은 격식에서 벗어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